



도토리의 추억

김종해
국회사무처 공보관실 자료조사관

달력 한 장 넘기자 계절이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계절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다. 12월이라는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은 앞서 찢겨진 열 한 장에서 다하지 못하고 부채로 이월되어온 일들이 담겨져 있어서인지 아쉬움과 무게가 더 느껴진다. 갈 길은 먼 나그네가 서산에 걸린 해를 바라보는 심정이다. 어릴적 방학이 끝날 무렵 밀린 숙제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던 때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하는 12월은 판관(判官)앞에 서있는 달이다.

지난 가을 휴일을 맞아 초등학교 3학년 딸과 함께 서울 근교의 산길을 걷다가 생긴 일이다. 오솔길에서 발아래 떨어진 도토리를 보고 딸은 마치 신기한 물건이라도 본듯 소리치며 주워 들었다. 갓 떨어져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는 도토리가 여기 저기 늘려있었다. 좁는 사이에도 툭툭 떨어지는 도토리 소리는 원시 수렵시대 때부터 상속받아온 유전인자를 자극해서인지 풀숲을 헤치면서까지 도토리를 줍게 했고 딸아이 호주머니가 가득했을 때 끝이 났다. 어린 시절 구슬대용으로, 성냥개비를 쫓아 팽이를 만들었던 도토리가 아직도 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은 나 자신이 그 동안 도시에서 얼마나 자연과 떨어져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게 해주었다.

다시 한참을 오르다가 나무등걸에 앉아 쉬고있는 도토리를 줍는 할머니를 만났다. 우리 둘은 어차피 가져가야 별로 쓰일 일도 없을 듯 하여 주운 도

지금 당장 손에 넣지 않으면
마음을 놓지 못하는 조급함과 더가져야
마음이 놓이는 탐욕은 숲이 내일임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홍년이라도 드는 해에는 참나무들이 '들판에 홍년이 들었으니
우리가 나서 저 배고픈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야겠다'며
열매를 많이 맺는 다는 것이었다.
장마와 태풍의 재앙에 대한 참나무들의 배려라는 것이다.

토리 중 몇 개만을 산에 온 기념으로 남기고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께서는 올해는 도토리가 풍년이라면서 산열매가 풍년인 이유에 대해 말해주었다. 산 위에 모여 사는 참나무들이 봄부터 들판을 내려다보며 올해는 풍년이 드나 홍년이 드나 살핀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홍년이라도 드는 해에는 참나무들이 '들판에 홍년이 들었으니 우리가 나서 저 배고픈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야겠다'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었다. 장마와 태풍의 재앙에 대한 참나무들의 배려라는 것이다. 아무렴 풍년에 도토리나 산열매가 인간에게 대접받을 리는 없지만 보릿고개와 홍년에서 우리를 살린 것은 산과 자연이었다는 할머니의 경험담은 작은 섭리를 느끼게 해주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서 이번에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고 말았다. 공사판에서나 쓰직한 해머가 손에 들려져 있는 도토리 약탈꾼을 만난 것이다. 그들은 도토리가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가 골고루 여러 사람에게 두루 나누어 주겠다는 참나무의 배려임을 깨달

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모든 것을 오늘 안에 그리고 지금 해치워야 한다는 결의만이 있을 뿐이었다. 참나무들에게 위안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손에 전기톱이 들려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옛날에도 떡메로 참나무를 치기도 했지만 그때는 도토리가 식량이었고 크게는 생존의 문제였다. 지금이야 못 먹어서 탈이 아니라 비만이 걱정인 시대가 아닌가. 지금 당장 손에 넣지 않으면 마음을 놓지 못하는 조급함과 더가져야 마음이 놓이는 탐욕은 숲이 내일 임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내리는 눈이 겨울의 삭막함과 쓸쓸함에 위안을 주는 계절이다. 아침이면 구름과 바람과 어둠이, 그리고 숲의 정령(精靈)이 순백으로 꽃을 피울 것이다. 상처받은 참나무들이 혹한의 겨울을 보내기 위해 행장을 꾸릴 때 잎은 챙기지 않아 지금은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지만 밤이면 그 떨어진 가지 사이로 별들이 있을 대신해 매달릴 것이다. 봄의 전령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PPKK